

‘haber’ 복수형 존재구문의 통사적 분석

유 은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은정(2015), ‘haber’ 복수형 존재구문의 통사적 분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초 록 본고에서는 스페인어의 비인칭 존재구문(impersonal existential construction)이 중남미의 많은 지역에서 haber동사의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비인칭 존재구문에서는 3인칭 단수의 비인칭 동사 ‘hay’가 존재의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로서 사용되며, 동사를 뒤따르는 명사구는 직접목적어로 기능한다. 그런데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과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 존재동사를 뒤따르는 명사구 논항이 복수형으로 나타날 때, 동사가 이 명사구에 일치하여 복수형으로 굴절된 형태로 사용되는 ‘haber 복수화(pluralization)’ 현상이 널리 확대되어 나타난다. haber 복수형 구문에서 동사가 직접목적어인 명사구 논항과 수 자질에서 일치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비인칭 존재구문과 비교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인칭 존재구문과 복수화 구문은 공히 장소어구를 기격주어로 취하는 구조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비인칭 존재구문은 기격 주어와 T의 Φ -자질의 자동 일치(default agreement)를 통해 형태적으로 3인칭 단수로 실현되며 복수화 구문은 T의 Φ -자질의 부분 일치(partial agreement)를 통해 3인칭 복수로 실현된 것으로 분석하여, 두 구문의 도출을 T의 Φ -자질 일치의 차이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핵심어 비인칭 존재구문, haber 복수화, Φ -자질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¹⁾

- (2) a. Lo hay.
b. Las hay.

또한 존재의 대상을 나타내는 이 명사구는 동사의 앞, 즉 전치주어(preverbal subject)의 위치에서는 도출될 수 없다.²⁾

- (3) a. Hay un hombre en la habitación.
b.*Un hombre hay en la habitación.

그러나 존재구문에 사용되는 haber동사는 일반적인 타동사 구문과는 구별되는 특징도 나타난다. 일반적인 타동사 구문에서는 유생성(animacy)을 갖는 명사구가 직접목적어일 때 전치사 'a'가 목적어의 앞에 동반되어야 하지만, hay 동사의 경우에는 전치사 'a'가 나타나지 않는다.

- (4) a. En este bar he visto a algunos profesores.
b. En este bar hay (*a) algunos profesores.
(Fernández Soriano and Táboas Baylín 1999, 1755)

또한 직접목적어로 인칭대명사나 고유명사, 정관사를 동반한 명사가 도출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 (5) a. *¿Hay ellas en el área?
b. *Hay el hombre en la habitación.
(Torrego 1984, 332-334)

1) 역사적으로 haber동사는 중세 스페인어에서 tener동사와 동일한 의미로 소유를 표현했고 타동사로서 사용되었다.
2) (3b)와 같은 어순이 불가능한 것은 haber동사의 뒤에 나타나는 목적어 명사구가 중립적(neutral)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목적어가 담화와 관련하여 정보요소(informational element)로 기능할 때는 동사 앞의 위치에서 도출될 수 있다.
(i) UN HOMBRE hay en la habitación.

즉, hay동사는 한정적(definite)인 요소를 목적으로 취할 수 없다.³⁾

그리고 hay동사는 일반적 타동사와는 달리 수동태 구문을 형성할 수 없다.

- (6) a. Juan cortó el árbol. → El árbol fue cortado por Juan.
- b. Hubo varias ardillas en el jardín. → *Fueron habidas varias ardillas en el jardín.
- (Torrego 1984, 336)

(6b)와 같이 행위자(agent) 논항을 주어로 갖지 않는 비인칭 구문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III. haber의 복수화

흥미로운 점은 비인칭 동사로 표현되는 존재구문에서 목적어 명사구가 복수일 때 이 명사구에 일치하여 복수형의 굴절된 동사 형태로 사용되는 예가 중남미의 여러 지역과 스페인에서도 조사된다는 것이다.⁴⁾

- (7) a. En cuatro meses han habido más muertos que durante los dos años que hubieron de Romero.
- b. Habían hacendistas como José María Castillo y Rada.
- c. Hubieron fiestas.
- d. Habrán alborotos.
- (Fernández Soriano and Táboas Baylín 1999, 1758; Bello and Cuervo 1948, 253)

(7)의 예에서 보듯이 haber동사를 뒤따르는 명사구가 복수인 경우 동사가 이에 일치하여 각각 현재완료, 불완료과거, 단순과거, 미래 등의 시제의 복수형

3) 영어의 there 구문에서 be동사 뒤에는 비한정적(indefinite) 명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가 hay동사의 존재구문에도 적용된다.

- (i) a. There is a man in the garden.
- b. *There is the man in the garden.

4) haber의 복수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인 연구는 Kany(1951), Montes Giraldo(1982), Suñer(1982), Bentivoglio and Sedano(1989), De Mello(1991), Díaz-Campos(2000, 200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인 ‘han habido’, ‘habían’, ‘hubieron’, ‘habrán’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이러한 haber의 복수화 현상에 대해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1989)에서는 중남미의 여러 지역과 스페인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8) Esta significación indeterminada explica que en algunas provincias españolas de Levante, y en numerosos países hispanoamericanos, se interpreten con verbos personales y se diga hubieron fiestas, *habían muchos soldados*, [...] concertando el verbo con su complemento plural, porque no es sentido como complemento, sino como sujeto. [...] Tal abundancia demuestra, por lo menos, la extensión y arraigo de esta construcción en el habla coloquial de aquellos países. (Real Academia Española 1989, 384-385)

haber의 목적어 명사구가 복수형일 때 이에 일치하여 haber가 복수형으로 굴절되는 현상은 이미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스페인어 화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Esbozo de una Nueva ática de la Lengua Española』(1989)에서는 haber의 복수형이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남미 지역의 스페인어

5) Bentivoglio and Sedano(1989), Real Academia Española and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2009)는 시제적으로 과거시제에서 haber의 복수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단순과거시제보다는 불완료과거시제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haber동사의 앞에 다른 조동사가 연결되어 동사구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복수형이 많이 조사된다.

(i) a. Habían muchas personas.
b. Pueden haber problemas fonológicos moderados. (CREA 2001)
c. No tienen que haber párrafos de menos de 10 líneas. (CREA 1994)

(i)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ber와 함께 나타나는 명사구가 복수일 때, 과거시제 구문에서 había가 아닌 habían이 사용되었고, haber동사에 조동사가 연결되어 hay가 아닌 동사원형 haber가 사용되는 경우에 (ib), (i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동사가 복수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지방 언어, 베네수엘라의 표준 이하의 언어, 콜롬비아 안티오키아(Antioquia)지역의 언어에서는 현재시제 hay의 복수형으로 ‘haen’이나 ‘hayn’의 형태도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된다(Kany 1951; Montes Giraldo 1982; Fernández Soriano and Táboas Baylín 1999).

에서는 단지 어떤 특정 계층이 사용하는 속어라거나 실제 대화에서만 사용되는 구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9)의 예와 같이 신문 자료에서도 haber 복수형의 사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9) a. Habían tres votos a favor y tres en contra. (CREA, El País, 17/07/2001)
- b. Aseguró que antaño habían muchas personas que se apuntaban por previsión. (CREA, Última Hora Digital, 03/06/2004)
- c. Afortunadamente, todavía no han habido sanciones económicas o financieras por parte de los Estados Unidos. (CREA, El País, 11/09/1996)
- d. Las protestas que han hecho son cívicas, no han habido actos de violencia. (CREA, La Nación, 16/04/1997)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De Mello(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De Mello (1991)는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 중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그 지역의 스페인어, 특별히 교양어(educated language)에서 haber동사의 복수형 존재구문이 사용되는 빈도를 조사하였고 그 사용이 상당히 빈번함을 밝히기도 하였다.⁶⁾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2009) 또한 오늘날 유럽 스페인어-특별히 스페인의 동부와 남동부-뿐만 아니라, 중남미 스페인어에 haber의 복수화 현상이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중남미 국가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6) De Mello(1991, 449)가 실시한 스페인어 사용 국가 중 10개 도시에서 사용되는 교양어에서 haber복수형의 사용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인칭 단수의 비인칭 형태를 사용하는 빈도와 비교한 수치이다.

- (i) 보고타(Bogotá): 16%
-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4%
- 카라카스(Caracas): 36%
- 하바나(La Habana): 27%
- 라파스(La Paz): 60%
- 리마(Lima): 40%
- 멕시코시티(México): 8%
- 산후안(San Juan): 31%
- 산티아고(Santiago): 39%

조사 대상 도시에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세비야도 포함되었는데, 이 경우는 0%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중남미 지역의 볼리비아의 라파스, 페루의 리마, 칠레의 산티아고,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등에서 복수형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고 기록하고 있다.⁷⁾ 여전히 haber동사를 비인칭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⁸⁾ 이제 haber의 복수화 현상은 중남미의 많은 국가의 스페인어 사용에서 쉽게 발견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V. haber 존재구문의 구조적 분석

존재구문에는 3인칭 단수형 hay가 사용될 뿐만 아니라 haber동사를 뒤따르는 명사구에 동사를 일치하여 haber의 복수형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 그럼 haber동사의 복수형의 도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비인칭 구문과 관련하여 도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100
 101

1. 비인칭 존재구문

앞서 살펴본것처럼 비인칭 hay동사가 도출되는 존재구문은 함께 도출되는 명사구가 직접목적어로 기능하는 요소이다. 이 명사구는 대격 접어로 대체될 수 있는 대격을 점검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비인칭 존재구문의 주어는 동사와 일치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어 위치는 외현적(overt) 요소가 없이 비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영주어(null subject) 언어인 스페인어의 경우, 존재구문의 주어 위치에 영허사(null expletive) pro를 가정한다(Chomsky 1995).⁹⁾ 그러나 영허사 pro는 음성적, 의미적 자질을 갖고 있지 않은 요소로서

7)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2009, 3063)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i) Se atestiguan numerosos casos de concordancia tanto en el español europeo (especialmente en el hablando en el este y el sureste de España) como en el americano. Se observa que el fenómeno está hoy en expansión, con intensidad algo mayor en América que en España.

8) 『Diccionario Panhispánico de Dudas』는 haber의 복수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i) Aunque es uso muy extendido en el habla informal de muchos países de América y se da también en España, especialmente entre hablantes catalanes, se debe seguir utilizando este verbo como impersonal en la lengua culta formal, de acuerdo con el uso mayoritario entre los escritores de prestigio.

접합부(interfaces)에서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소주의의 경제 원리(economy principle)에 따라 배번집합(enumeration)에 포함될 수 없는 요소로 본다(Chomsky 1995).¹⁰ 본고에서는 존재구문의 주어 위치에 pro를 설정하지 않고, 기격 주어(quirky subject)를 가정하고자 한다(cf. Masullo 1993; Fernández Soriano 1999; Rigau 2005).¹¹ 구체적으로, 비인칭 hay 존재동사구문의 경우 사격(oblique case)을 갖는 장소어구 PP가 주어의 위치에서 기격 주어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다. PP가 주어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뒷받침

9) 영주어 언어는 비인칭 구문에 주어 pro를 가정하고, 주어의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 영어, 불어, 독일어 등에서는 비인칭 구문의 주어 위치에 외현적으로 주어가 도출되어야 한다.

- (i) a. Llueve.
- b. It rains. (English)
- c. Il pleut. (French)
- d. Es regnet. (German)

(Bosque and Gutiérrez-Rexach 2009, 348)

10) Chomsky(1995, 294)는 다음과 같이 경제성 원리를 가정한다.

- (i) α enters the numeration only if it has an effect on output.

이러한 경제성 원리에 따라 영허사 pro의 설정을 반대하는 논의는 Picallo(1998), 이만기(200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1) Levin and Simpson(1981)이 처음 사용한 '기격'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주어는 주격을 받아야 하고 목적어는 목적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격을 받지 않아 구조격이 변형(displacement)된 것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기격 구문이 나타나는 아이슬란드어의 예를 살펴보자(cf. Zaenen et al. 1985; Sigurðsson 1991, 1992, 1996; Taraldsen 1995).

- (i) a. Stelpunum var hjálpað
 The girls_{dat.pl.fem} was_{3.sg} helped_{n(outer).sg}
 'The girls were helped.'
- b. Þeim virðist hafa verið hjálpað
 Them_{dat.3.pl} seems_{3.sg} have been helped_{n.sg}
 'They seem to have been helped.'

(Sigurðsson 1992, 3)

(i)에서 주어로 사용된 'Stelpunum'과 'Þeim'는 문장에서 주격을 받지 않고 여격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동사는 자동 일치를 통해 3인칭 단수로 굴절된다.

스페인어에서도 기격 주어가 나타나는 구문이 존재한다. 다음 (ii)에서 여격 형태의 요소가 기격 주어로서 분석되는 구문이다(cf. Masullo 1993; Fernández Soriano 1999).

- (ii) a. Me gusta jugar al fútbol.
- b. Me falta café.

할 증거는 다음과 같다.

만약 존재구문에서 장소어구 PP가 동사의 앞에서 도출될 때, PP가 문장 내의 특정 위치에서 문두로 이동한 것이라면, 이는 담화 관련 의미 해석과 관련된 정보 구조의 요소로서 관련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이동일 것이다. 그러나 존재구문의 문두에 도출된 PP는 문장에서 특별한 담화 관련 의미 해석을 유발하지 않는다(Fernández Soriano 1999).

- (10) a. En esta tienda hay pan.
- b. En la sala hay muchas personas.

(10)에서 문두에 나타난 장소어구 PP는 문장 내에서 중립적 해석이 이루어지며, 이는 담화 관련 해석을 받기 위해 PP가 문두로 이동한 초점이나 화제(topic)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소어구 PP는 문두에서 사용되는 것이 무표적(unmarked) 위치에서의 도출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등위구문(coordination construction)에서 첫 번째 접속구(conjunct)에 나타난 요소와 동일한 구성소는 두 번째 접속구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 (11) a. Marta toca el piano y ____ pinta.
- b. *El periódico anunció la venta en las páginas económicas y Juan compró ____.
- c. Eg hafði mikið að gera og ____ var samt ekki hjálpað.
I-NOM had much to do and DAT was still not helped
'I had much to do and was nonetheless not helped.'
(Gutiérrez-Bravo 2006, 135)

(1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접속구에서 모두 주격을 점검하는 동지사(coreferential)의 요소인 주어 'Marta'는 두 번째 접속구에서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11b)와 같이 첫 번째 접속구에서 주어인 요소 'el periódico'와 동지사의 요소가 두 번째 접속구에서 목적어인 경우, 두 번째 접속구에서 이 동지사의 요소가 생략된 구문은 비문이 된다. 그런데 첫 번째 접속구에서 주어인 요소와 동지사의 요소가 두 번째 접속구에서 기격 주어로 도출되는 구문에서는 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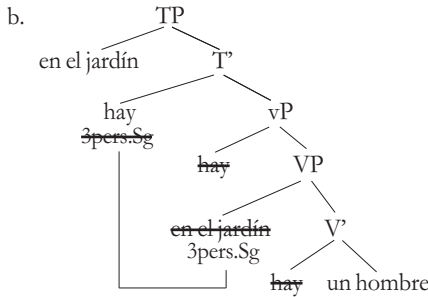
시의 요소가 생략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11c)의 아이슬란드어 구문에서 주격을 점검한 주어 ‘Eg’와 동지시의 요소가 두 번째 접속구에서는 여격의 형태를 통해 기격 주어로 기능한다. 이때 두 번째 접속구의 기격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격 주어도 첫 번째 접속구의 주격 주어와 동일한 위치에서 도출되는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다루는 존재구문의 장소어구 PP 역시 등위구문에서 생략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하자.

- (12) a. La ceremonia dura diez minutos y ____ no hay flores.
 b. El lugar está lleno y ____ no hay espacio ni para sentarse.
 (CREA, El Mundo 27/11/1994; Montes 2015)

(12)에서 보듯이, 주격을 점검한 주어 ‘La ceremonia’, ‘El lugar’는 두 번째 접속구에서는 장소어구 PP ‘en la ceremonia’와 ‘en el lugar’에 해당하며 이 PP는 등위구문의 두 번째 접속구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는 스페인어 존재동사 hay구문의 장소어구 PP가 주어와 동일한 통사적 위치에서 도출되는 기격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주격을 점검하는 일반적 주어와는 달리 비정규적 기격 주어가 도출되는 경우 어떻게 비인칭 존재구문을 형성하는지 살펴보자. 행위자(agent) 주어를 갖지 않고 여격(dative) 혹은 처소격(locative) 요소가 기격 주어(quirky subject)로서 기능하는 구문에서는 주격을 점검할 다른 논항이 없는 경우, 기격 요소와 T의 자동 일치(default agreement)를 통해 동사는 3인칭 단수로 도출된다(cf. Sigurðsson 1996; Taraldsen 1995; Schütze 1999; Boeckx 2000). Boeckx(2000)는 기격 주어의 자동 일치를 이미 기격 주어가 주어의 위치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동사와의 일치를 모두 표현하는 것으로 동사와 기격 주어 사이의 일치를 동사에 외현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¹²⁾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고에서는 기격 주어를 갖는 비인칭 hay동사의 존재구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13) a. En el jardín hay un hombre.



장소어구 ‘en el jardín’이 기격 주어로서, 다른 구조격 주어가 없이 기격 주어만 있는 이러한 구문에서 T의 Φ -자질 점검은 기격 주어와 이루어진다. T의 [person]과 [number]자질이 모두 기격 주어와 일치하게 되는데, 이때 기격 주어의 일치는 동사에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3인칭 단수로 자동 일치한다.¹³⁾ 따라서 존재동사 haber는 항상 3인칭 단수 hay로 실현된다.¹⁴⁾¹⁵⁾ 이어서 기격 주

- 12) Boeckx(2000, 366)은 다음과 같이 기격 주어와 동사 사이의 일치 문제를 설명한다.
- (i) Economy considerations might dictate the non-overt manifestation of agreement on the verb, because the information is already visible on the noun (it seems a general fact about human languages that the checked feature is realized on only one member of the checking relation), a sort of “Generalized Doubly Filled Comp Filter.” More subtly, Dative agreement is also manifested in the obligatory third person morphology on the verb.
- 13) Chomsky(2000, 2001)는 기격 주어도 추가적인 구조격(structural case) 자질을 갖는다고 보았다.
- 14) 비인칭 동사 hay는 형태적 측면에서 haber의 3인칭 단수형 ha에 y라는 소위 ‘위치의 접어(locative clitic)’가 융합(incorporation)되어 이루어진 형태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 y는 기격 주어의 접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존재 구문에서 위치의 접어는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 (i) a. C’e un uomo nella stanza. (Italian)
There is a man in the room
 - b. Il y a un homme dans la chambre. (French)
There is a man in the room

스페인어는 동사의 시제 형태소에 통합되어 ‘ha+y’가 ‘hay’로 나타나지만, 이탈리아나 불어의 경우는 동사의 일부로서 나타난다. 이탈리아는 장소를 나타내는 ‘ci’와 존재 동사 ‘e’가 합쳐져 ‘c’e(여기(거기)에 있다)’로 사용된 것이며, 불어의 경우는 장소를 나타내는 ‘y’가 동사와 함께 결합된 ‘il y a’가 ‘(~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어 ‘en el jardín’은 T의 EPP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Spec-T로 이동한다. 이는 EPP자질을 T의 비해석성 자질의 하위 자질(subfeature)로 보고 T의 비해석성 자질 점검을 통해 활성화된다고 본다(Pesetsky and Torrego 2001). 여기에서 T 자체는 아무런 자질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T의 비해석성 자질은 C가 T를 선택함으로써 국면 핵 C로부터 계승하는 것이다(Chomsky 2007, 2008). 비인칭 존재구문의 도출은 C로부터 모든 비해석성 자질이 T로 전달되어 자질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주장한다.

2. haber 복수형 존재구문의 구조적 분석

다음은 haber동사로 이루어진 존재구문에서 함께 도출된 명사구가 복수형일 때 haber동사가 3인칭 복수형으로 일치하는 현상을 분석해 보자.

- (14) a. En la casa de mi abuela habían unos cuadros muy lindos.
 b. En mi vida han habido momentos difíciles.
 (CREA oral; CREA 1997)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사구 ‘unos cuadros muy lindos’, ‘momentos difíciles’가 복수형일 때 동사가 ‘había’, ‘ha habido’의 3인칭 단수형으로 사용되는 대신, 복수인 명사구에 일치하여 각각 ‘habían’, ‘han habido’로 사용되는 현상이 주로 중남미 스페인어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뒤따르는 명사구가 단수일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복수화 현상은 동사와 명사구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비인칭 구문과는 달리 명사구가 주어로서

- 15) 기격 주어의 접어 ‘y’를 가정할 때, 접어는 기격 주어 PP와 함께 중복되어 도출된다. 이에 접어 ‘y’는 기저 생성되는 요소로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VP상위에 투사된 기능 범주 CIP의 핵에 기저 생성되는 요소로 Spec-Cl에 기격 주어가 병합된다. 이후 기격 주어는 Spec-T로 이동하여 자질을 점검하고 동사는 접어 y와 함께 T로 이동한다. 그리고 기격 주어의 접어 y의 T와의 병합으로 T의 자질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Spec-T로의 외현적 이동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cf. Franco and Huidobro 2012).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계로 존재구문의 구조에 접어의 도출을 상세하지 않았다.

동사와 일치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haber복수형의 존재 구문에서도 동사를 뒤따르는 명사구는 비인칭 구문과 마찬가지로 직접목적어로서 대격을 점검한다. 다음과 같이 명사구가 대격 접어로 대체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15) a. Son contados los entrenadores que anteriormente fueron porteros.
Lógicamente *los han habido* y los habrá. (Valle 2015)
- b. En la enseñanza, por ejemplo, profesores *los hubieron* en todo tiempo y lugar. (Rubio 2009)
- c. Se observan algunas canchas que antes no *las habían*. (D'Aquino Ruiz 2004, 8)

또한 haber동사가 복수형으로 명사구와 일치한 구문에서 해당 명사구 내부로부터의 하위 추출(subextraction)이 가능하다.

- (16) a. Habían algunos libros de sintaxis en mi cuarto.
- b. ¿De qué habían [algunos libros t] en mi cuarto?
(Rodríguez-Mondoñedo 2005, 330)

일반적으로 주어가 A-위치인 Spec-v에서 도출될 때, 주어 내부로부터의 추출은 비문이 된다. 그러나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ber복수형 구문에서 명사구 내부로부터 문두로의 'de qué'의 wh-이동은 정문이다. 따라서 haber를 뒤따르는 명사구는 Spec-v에서 도출된 후치주어가 아니라고 본다.

등위구문에서 haber를 뒤따르는 명사구가 등위 연결된 다른 동사의 주어와 공통된 요소인 다음 예를 살펴보자.

- (17) a. *Había y olían agradablemente dos docenas de rosas.
- b. *Habían y olían agradablemente dos docenas de rosas.
(Suñer 1982: 104)

(17)에서 'dos docenas de rosas'는 두 번째 접속구에서 주격을 점검하는 요소이다. (17a)에서 이 명사구는 'había'의 목적어이고 'olían'의 주어이기 때문

에 서로 다른 기능의 문장 요소가 등위구문으로 연결되어 비문이 된다. 만약 (17b)에서 이 명사구가 'habían'의 주어로 동사와 일치한 것이라면 이는 정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haber동사가 단수이거나 복수이거나 이러한 등위구문은 비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동사가 공유하고 있는 명사구 'docenas de rosas'는 동일한 통사적 위치에 있는 요소가 아니며, haber동사를 뒤따르는 명사구는 주어가 아니라고 본다.¹⁶⁾

결과적으로 haber동사가 복수형으로 나타나는 (14), (15)와 같은 구문은 뒤따르는 명사구, 즉 대격을 점검하는 목적어가 복수일 때만 동사와 일치하므로, 동사가 명사구와 [number]자질을 점검한다는 의미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T의 자질 일치와 차이를 통해 비인칭 구문과 구별된다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격 일치가 이루어지는 구문에서 동사의 부분 일치(partial agreement)를 주장하는 Boeckx(2000)의 논의를 haber 존재구문에 적용하고자 한다. Bonet(1994)는 기격 주어(i.e. 여격)가 나타나는 문장에서 보충어(complement) 위치에 1인칭, 2인칭 명사구는 도출될 수 없으며 반드시 3인칭만 도출되는 현상을 통해 기격 주어가 있는 구문에 '인칭-격 제약(Person-Case Constraint, 이하 PCC)'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¹⁷⁾ Boeckx(2000)는 아이슬란드어의 기격

16) 다음 (i)과 같이 문장에 기격 주어가 도출된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주격을 점검하는 요소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사는 기격 주어가 아닌 주격 주어와 일치하게 된다.

(i) a. Henni voru gefnar bækurnar (Icelandic)
 Her_{dat} were_{3,pl} given books_{nom,pl}
 'She was given books.'
 (Sigurðsson 1992, 5)

b. Me gustan las rosas.

(ib)와 같은 경우, 구조적 주어가 주격을 점검하고 기격 주어인 여격 주어는 주어의 위치를 채우는 일종의 EPP 주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는 존재구문의 기격 주어가 동사와 Φ -자질의 일치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또한 (ib)의 심리동사구문의 경우 구조적 주어의 위치에 1, 2인칭 주어가 도출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도 존재구문의 구조와는 상이하다고 본다.

17) Bonet(1994)는 동사가 여격, 대격과 일치하는 경우, 대격 요소는 반드시 3인칭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PCC를 주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불어의 접어 도출에 적용될

주어 구문에서 대상역 논항은 3인칭 명사구만 도출이 가능한데, 이는 기격 주어와의 일치가 대상역 논항의 인칭에 제약을 준다는 것으로 보았고 기격 주어와의 일치는 동사에 3인칭으로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를 확장하여 동사는 기격 주어와 인칭의 일치를 하고 대상역 논항과는 수의 일치만 하는 부분 일치가 PCC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보았고 기격 주어 구문에 적용한다. 즉, 동사가 기격 일치를 하게 되면 대상역 논항은 인칭이 아닌 수에서만 일치를 하게 된다는 제약으로, 동사는 기격 주어와의 일치를 통해 항상 3인칭으로 일치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Boeckx(2000)의 논의를 스페인어 존재구문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스페인어 존재구문에도 PCC가 나타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존재구문의 대격 명사구는 1인칭, 2인칭의 [person] 자질을 갖는 한정적 명사구가 도출되면 비문이 된다. 즉, 기격 주어가 도출되는 존재구문에서 대격 명사구에 인칭 제약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존재구문의 기격-대격의 조합에서 기격 주어와 함께 도출되는 대격 명사구는 유생성이 없는 비한정적 대상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cf. Richards 2008).¹⁸⁾ 이러한

수 있다.

- (i) a. *Jean me lui a recommandé.
Jean me him has recommended
'Jean has recommended me to him.'
- b. Jean le lui a recommandé.
Jean it him has recommended
'Jean has recommended it to him.'
(Boeckx 2000, 364)

(i)의 예는 불어의 여격 논항은 1, 2인칭 대격 논항과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PCC는 여격-대격의 조합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여격/능격(ergative)-대격/속격(genitive)/절대격(absolutive)의 조합으로도 확대되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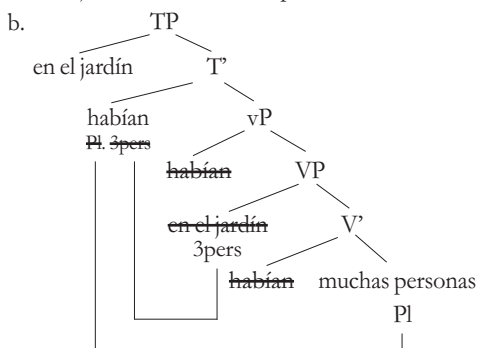
- 18) Richards(2008)은 두 번째 논항에 유생성, 한정성이 없는 명사구만이 허가되는 구문을 강한 PCC(strong PCC) 효과를 나타낸다고 제안하였다. 그 중 유생성의 제약을 나타내는 구문으로 *leísmo* 사용 지역의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현상을 제시한다.

- (i) a. Te lo di.
b. *Te le di.
(Richards 2008, 146)

Leísmo 사용 지역에서는 직접목적대명사로 3인칭의 사람을 가리키는 'le'가 2인칭의

의미에서 Boeckx(2000)를 따라 복수형 존재구문의 기격 주어는 동사와 인칭의 일치를 하고 대상역 논항과는 수의 일치를 하는 부분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T의 Φ -자질 일치가 기격 주어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haber를 뒤따르는 명사구 논항과도 이루어지는 부분 일치를 통해 haber복수형 존재구문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복수형 구문은 다음의 구조로 도출된다고 본다.

(18) a. En el jardín habían muchas personas.



비인칭 존재구문과 동일하게 복수형 존재구문도 장소어구 PP가 기격 주어로 기능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Boeckx(2000)의 논의에 따라, 기격 주어가 T와 일치할 때 T의 Φ -자질의 일치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T의 비해석성 Φ -자질인 [number]자질의 점검을 위해 탐침 영역 내에 점검 가능한 목표를 찾게 된다. 이 자질 일치의 과정은 탐침인 v와 T의 탐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v와 목표인 명사구 ‘muchas personas’의 일치를 통해 대격을 점검하는 것이고, [number]자질만을 갖는 T 역시 목표인 ‘muchas personas’와 일치를 통해 haber동사가 형태적으로 복수형으로 표출되는 것이

간접목적대명사와 함께 사용된 (ib)가 비문으로 판정된다. (ia)는 직접목적어가 [-person]인 경우이고, (ib)는 [+person]인 경우이다. 이는 간접목적어와 인칭 자질을 점검하고 수 자질만을 갖고 있는 T는 인칭 자질이 없는 목표와 일치를 할 수 있기 때 문에 인칭 자질을 갖고 있는 ‘le’가 도출된 (ib)는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다. 다음은 T에 남아있는 [person]자질의 점검이 이루어지며, 기격 주어와의 일치는 T가 자동으로 3인칭으로 도출되도록 한다. 기격 주어와의 일치를 통해 T의 EPP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Spec-T로 PP의 이동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복수형 존재구문에서 동사가 3인칭 복수로 표출되는 현상은 동사가 인칭 자질의 일치는 기격 주어와 하고 수 자질의 일치는 대상역 논항과 하는 동사의 부분 일치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비인칭 구문의 자동 일치와는 달리 이러한 부분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C로부터 T가 자질 계승을 하기 전, 즉 C가 연산에 도입되기 전에 T가 원래 자신의 범주 자질로서 수 자질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T와 v가 함께 탐침으로서 목적어와 일치를 하게 된다. 이어서 C가 도입되어 T로 자질 계승을 한 후에 T는 기격 주어와 일치를 하게 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스페인어의 비인칭 존재구문과 haber복수형 존재구문은 기격 주어와 목적어 명사구를 취하는 동일한 구조 하에서 분석된다고 주장하며, 두 구문의 차이는 T의 자질 일치에 기인한다고 본다. 기격 주어와 T가 일치하여 T의 Φ -자질이 모두 점검되는 자동 일치를 하는 경우 3인칭 단수의 비인칭 구문으로 도출되며, 기격 주어와 T의 일치에서 T의 인칭 자질만 점검되고 T와 목적어 명사구 사이에서 수 자질이 점검되는 부분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haber복수형 구문이 도출된다.

V. 결론

스페인어의 비인칭 존재구문은 haber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인 hay동사와 동사를 뒤따르는 목적어 논항으로 이루어진다. 목적어 논항이 단수이든 복수이든 동사는 3인칭 단수로 도출된다. 그러나 중남미의 많은 지역에서 존재구문의 목적어 논항이 복수인 경우 haber동사를 이에 일치하여 복수형으로 굴절된 형태로 사용하는 소위 ‘haber 복수화 현상’이 널리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haber 존재구문이 두 가지 형태로 도출되는 차이를 구조적으로 분

석하였다. 일반적인 비인칭 존재구문과는 달리, haber 복수형 존재구문에서는 뒤따르는 명사구가 복수일 때만 동사가 복수형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명사구를 주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는 비인칭 존재구문과 마찬가지로 직접목적어로 기능한다. 두 구문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존재구문의 주어 위치에는 장소어구 PP가 기격 주어로 기능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비인칭 구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어로 기격 주어가 도출될 때 T는 자동 일치를 통해 3인칭 단수로 실현된다. 이는 T의 전체 Φ -자질을 주어와 일치한 것이다. haber 복수형 존재구문의 경우는, 인칭-격 제약을 바탕으로 한 T의 부분 일치(Boeckx 2000)를 적용하여 기격-대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구문에서 T의 Φ -자질 일치를 분리하였다. 기격 주어는 C로부터 T로 전달된 인칭 자질을 일치하고 T가 갖고 있던 수 자질의 일치는 목적어 논항과 함으로써 T는 3인칭 복수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두 구문의 구조를 기격 주어가 도출되는 구문에서 T의 자질 일치의 차이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참고문헌

- 이만기(2002), 「최소주의에서의 영허사 주어에 관하여」, 어학연구, Vol. 38, No. 1, pp. 179-209.
- Bello, A. and Cuervo, R.(1948),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Buenos Aires: Ediciones Anaconda.
- Boeckx, C.(2000), “Quirky Agreement,” *Studia Linguistica* 54, pp. 354-380.
- Bentivoglio, P. and Sedano, M.(1989), “Haber: ¿Un verbo impersonal? Un estudio sobre el español de Caracas,” *Estudios sobre español de América y lingüística afroamericana: 45 Congreso Internacional de Americanistas*, Bogotá: Instituto Caro y Cuervo, pp. 59-81.
- Bonet, E.(1994), “The Person-Case Constraint: A Morphological Approach,” Harley, H. and Phillips, C.(eds.), *The morphology-syntax connectio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2, Cambridge, MA: MIT Press, pp. 33-52.
- Bosque, I. and Gutiérrez-Rexach, J.(2009), *Fundamentos de Sintaxis Formal*, Madrid: Akal.
- Chomsky, N.(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The MIT Press.
- _____(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artin, R., Michaels, D. and

- Uriagereka, J.(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Cambridge, MA: MIT Press, pp. 89-155.
- _____(2001), “Derivation by Phase,” Kenstowicz, M.(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pp. 1-52.
- _____(2007), “Approaching UG from Below,” Sauerland, U. and Gartner, H.-M.(eds.), *Interfaces + Recursion = Language?*, New York: Mouton de Gruyter, pp. 1-29.
- _____(2008), “On phases,” Freidin, R., Otero, C. P. and Zubizarreta, M. L. (eds.),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Cambridge: MIT Press, pp. 133-166.
- D’Aquino-Ruiz, G.(2004), “Haber Impersonal en el Habla de Caracas: Análisis Sociolingüístico,” *Boletín de Lingüística* 21, pp. 3-26.
- De Mello, G.(1991), “Pluralización del Verbo Haber Impersonal en el Español Hablado Culto de Once Ciudades,” *Thesaurus*, 46, pp. 445-471.
- Díaz-Campos, M.(2000), “La Pluralización del Verbo Haber en Dos Areas Dialectales de Hispanoamérica,” *Anuario de Lingüística Hispánica* 15-16, pp. 219-228.
- _____(2003), “The Pluralization of Haber in Venezuelan Spanish: A Sociolinguistic Change in Real Time,” *Indiana University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03-05, pp. 1-13.
- Fernández Soriano, O. and Táboas Baylín, S.(1999), “Construcciones Impersonales no Reflejas,” Bosque, I. and Demonte, V.(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Vol. 2, Madrid: Espasa-Calpe, pp. 1723-1778.
- Franco, J. and Huidobro, S.(2012), “Postverbal subject agreement in SVO languages,” *Anuario del Seminario de Filología Vasca Julio de Urquijo: International journal of basque linguistics and philology* 46, pp. 137-150.
- Gómez Torrego, L.(2003), *Nuevo manual de español correcto*, Madrid: Arco/Libros.
- Gutiérrez-Bravo, R.(2006), “A Reinterpretation of Quirky Subjects and Related Phenomena in Spanish,” Nishida, C. and Montreuil, J. P.(eds.), *New Perspectives in Romance Linguistics* Vol. I, Amsterdam: John Benjamins, pp. 127-142.
- Kany, C. E.(1951), *Sintaxis hispanoamericana*, Madrid: Gredos.
- Levin, L. S. and Simpson, J.(1981), “Quirky Case and Lexical Representations of Icelandic Verbs,” *Chicago Linguistics Society* 17, pp. 185-196.
- Masullo, J. P.(1993), “Two Types of Quirky Subjects: Spanish versus Icelandic,” *Proceedings of NELS* 23, pp. 303-317.
- Montes Giraldo, J.(1982), “Sobre Sintagma Haber + Sustantivo,” *Thesaurus* 37, pp. 383-385.
- Montes, L. A.(2015), “Desborde de la Terminal genera caos e inseguridad,”

- Suñer, M.(198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Presentational Sentence-Types in Spanish*,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Taraldsen, K.(1995), “On agreement and nominative objects in Icelandic,” Haider, H., Olsen S. and Vikner, S.(eds.), *Studies in Comparative Germanic Syntax*, Dordrecht: Kluwer, pp. 307-327.
- Torrego, E.(1984), “Algunas Observaciones sobre las Oraciones Existenciales con ‘Haber’ en Español,” *Estudis gramaticals* 1, Bellaterra: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pp. 329-340.
- Valle, C.(2015), “Nuno-Abel: exporteros en banquillos en las antípodas,” http://as.com/m/futbol/2015/04/27/primer/1430093221_274046.html.
- Zaenen, A., Maling, J. and Thráinsson, H.(1985), “Case and grammatical function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3, pp. 441-483.

유은정

한국외국어대학교
patricia5@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5년 7월 13일

심사완료일: 2015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19일

A Syntactic Analysis of the Pluralization of 'haber' in Spanish Existential Construction

Eun-jung, You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u, Eun-jung(2015), A Syntactic Analysis of the Pluralization of 'haber' in Spanish Existential Construction. *Revista Iberoamericana*.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syntactically the pluralization of haber in Spanish existential construction in which impersonal verb form is used in standard Spanish. The third person singular verb 'hay' used in impersonal existential construction selects a nominal phrase as a direct object. Plural forms of verb 'haber' in existential construction are used in many varieties of Spanish. This phenomenon is extensively found in Latin American Spanish. When a plural noun appears as argument in existential construction, the verb undergoes 'Agree' with its argument in number feature. I will analyze impersonal existential construction and pluralization construction under the same syntactic structure, proposing that locative prepositional phrase occupies the preverbal position as quirky subject. I claim that the difference in verbal form observed in two constructions comes from ϕ -feature agreement of T. Concretely, T's ϕ -features checking with quirky subject induce default agreement on T(a third person singular form) in impersonal existential construction. The pluralization construction is formed by partial agreement of T's ϕ -features.

Key words Impersonal existential construction, Pluralization of 'haber', ϕ -features